

4월 2주
동역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 본문 말씀: 민수기 11:16~17 (4월 8일 본문)

■ 포인트: 내가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 주세요.

≡ 1.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 2. 찬양

(경배와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 3. 말씀

민수기 11:16~17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성경>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17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네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 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 본문 이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지도자인 모세를 매우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질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모세가 지도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셨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 때문에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어요(민 11:5). 그들은 종살이의 힘듦과 억울하고 괴로웠던 경험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등의 음식만 생각하며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잊은 채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 냈지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모세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어요.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백성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정직하게 속마음을 말씀드렸어요(민 11:14~15). 하나님은 모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의 짐을 함께 질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각 가문에서 나이가 있고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 70명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세가 맡고 있는 책임을 나누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 짐을 나눠 지게 하셨어요.

4. 나눔

1)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16~17절)

■ 저학년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7절)

■ 유아·유치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17절)

□ 질문 가이드

혼자서 힘들어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민 11:11~15).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부어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계속되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모세가 힘들어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함께 질 70명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혼자 감당하는 짐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장로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모세와 같은 지혜로 백성에 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도자의 고충을 이해하시는 분이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협력해 주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롬 8:28).

2)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은 누구며, 그들은 내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 저학년

가족, 친척, 친구 중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유아·유치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질문 가이드

각자 힘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들이 누구인지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 주신 동역자임을 상기시켜 주세요. 혹 도움이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세요. 가족이 분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분담해 보세요. 가령 엄마가 혼자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한다면, 자녀들이 수저를 놓거나 물을 떠 놓는 일 등으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엄마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서로 짐을 나누어 지게 하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필요와 도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도울 때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셨고(갈 6:2),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려고 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 5. 감사하기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셔서 짐을 나누어 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맡겨진 일을 정한 기한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세요. 또한 저희도 다른 사람의 필요와 도움을 살피며 기꺼이 짐을 나누어 지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